초 점

무공해 농산물 어떻게 볼 것인가?

잔류허용치 이하면 모두가 「무공해」

조 광 훈 연천군 농촌지도소장

요즈음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크게 높아져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발암성이 있는 성분이 잔류되어 있지나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TV나 신문보도를 통해 '농약잔류' '농약공해'등 농약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으며 일부 도시소비자들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얻기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은 모든 농작물에 농약이 더덕더덕 붙어있어 먹기만 하면 암에 걸리고 농약이 마치 모든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여 백화점등에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값비싸게 사먹고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 같다.

농산물 개방화 추세에 있어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집중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올바른 농약사용법 실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53개 작물과 33개 농

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농촌지도소를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 농협등은 올바른 농약 사용법의 대농민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농약의 안전사용과 올바른 이해를 위해 겨울농민교육을 포함해 특별농민교육, 고소득작목교육등에 필수 과목으로 선정, 대농민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부락앰프, 유선TV, 각종 소식지·회보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양질미 안전생산을 위해 진미벼등 신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양질미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도시 소비자와 계약생산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를 통해 농민이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들의 농약 잔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많이 소비시켜 농가소득도 증가시킬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농약은 농작물 생산의 필수자재

30년 전만해도 춘궁기니 보리고개라는 말이 유행하였고 끼니를 걱정해야될 정도로 먹는것에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 엊그제 일이었으나 지금은 보리고개라는 말의

뜻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까맣게 잊혀져가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공포감 때문에 농약을 안뿌리고 농사를 짓게 된다면 이러한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농약이 농작물 재배시 필요없는 것이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중독 위험을 무릅쓰고 경비와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약살포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및 감소추세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병해충으로 인한 수량감소는 물론 제초작업등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농산물가격이 크게 높아져 결국은 소비자의 생활비가 압박받게 될것이다.

일본의 경우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병해충의 감수율을 보면 시설재배한 오이는 98%, 노지재배 오이는 90%, 벼는 40%, 콩은 30%, 감귤은 25%가 감수되었다고 한다. 생력화재배 시대의 현대농업에서 농약사용은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대체할 방법도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1987년 7월에 지구촌 인구는 50억을 돌파했으며 21세기에는 100억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현재의 두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량문제 해결에 있어서 농약의 이용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될것이다.

무공해 농산물은 있을 수 없다

최근 남극의 오염도 측정에서도 농약성분이 검출된다고 하는바 완전한 무공해 식품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었고 농가소득도 옛날보다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 증산위주의 농산물생산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코자 농민도 연구, 노력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질좋고 깨끗한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어 소비자도 기호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을 마음놓고 선택할수 있을 것이다. 벌레먹은 채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안전하겠지 하고 시장에서 벌레먹은 채소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다. 채소를 가해하는 벌레나 병원균의 독소와는 달리 농약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조사되고 있어 발암 위험성이 있는 농약은 등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벌레먹은 채소나 병든 채소 보다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벌레나 병원균이 없는 깨끗한 농작물이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농민도 농약 적게 뿌리려고 노력

'90년 1~9월까지 보건사회부 및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소가 매월 한차례씩 쌀등 29개 농산물을 수거, 모두 5백84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특히 소비자

가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던 상추, 오이, 풋고추, 토마토, 딸기등이 이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모두가 우리농민들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87년도 우리군의 년중 농약살포 횟수는 벼농사의 경우 7회이상 농약살포가 70%를 넘었지만 작년의 경우 5~6회 살포가 57%로 점차 농약살포가 줄어들고 있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시행에 따른 농민반응조사는 ① 알고있다(97%) ② 모른다(3%)로 이제 농민의 인식도 크게 바뀌어 병해충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농약을 뿌리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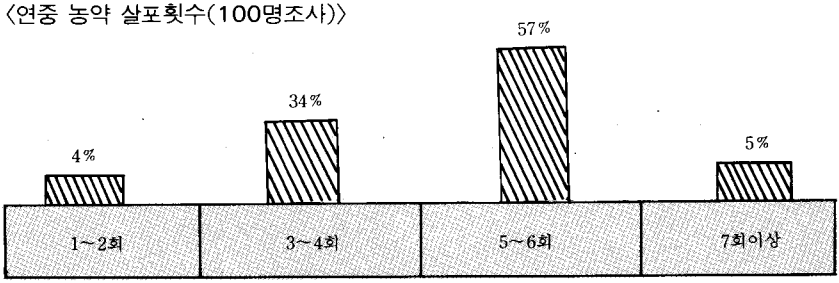
농작물 재배요령도 비닐피복재배, 비가림시설 재배등 새로운 농작물재배 기술의 보급으로 다비·다농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곡의 자급달성은 물론이고 기타 농산물도 충분히 생산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잔류허용치 이하면 무공해 식품

무공해 식품이란 과연 어떤 식품인가. 소비자들의 생각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작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공해 식품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농작물이 소비자가 생각하듯이 전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신문(91. 3.25)에 의하면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유기농법농가 40호를 대상으로 조사

〈연중 농약 살포횟수(100명조사)〉



한 결과 이들의 90%가 퇴비와 화학비료를 함께 사용했으며 60%는 제초제를, 90%는 농약을 각각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재배와 비교할때 사용량이나 사용횟수가 적을 뿐이다. 따라서 무공해라는 단어는 쓸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농법이나 수경재배가 아닌 보통재배 방식으로 키운 농산물은 모두 공해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농민이 재배한 농작물에서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농작물은 모두 무공해식품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은 평생을 두고 먹어도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밀예찰 실시로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져 농약을 최대한 적게 뿌리는 경제적 방제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잔류허용치 이하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노력하는 것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된다.